



## 제2장 상량문

### 大成殿 重建 上樑文 (대성전 중건 상량문)

郁郁乎文物維新 咸仰自天縱之聖 翼翼然廟貌 如古聿觀不日成之功 基以萬世之土 周以數之墻 始創于丙 載完于丁 仁爲門義爲路 一鄉之章甫 自此而升 學而宮 變而堂 三代之儀文 於斯可觀 粵壬辰灰燼之厄 斯文不幸 後癸丑營始之功 聖化無窮 邇來星霜重變 漸見棟宇之不古 遽然風雨惟滲 尙欠俎豆之無誠 際茲邦運亨泰 幸我太守南來 爰謨一二人同志 茲營數百年未遑 招良工而奏技 左準繩 右規矩 運美材而輸功 大化桶 小侏儒 升彼堂而舍菜<sup>1)</sup> 南州之化賁興 臨泮水而采莪<sup>2)</sup> 北學之士咸萃 不有百世之師 孰詔後學而晉 朱棋<sup>3)</sup> 繼而入雲 次第開東齋西學 碧瓦參差而庇雨 相對起倫堂化樓 配以顏曾孟群聖 丕闡一貫道之妙 享以程朱張諸賢 盡是四科<sup>3)</sup> 中之人文不在茲乎 道其將行也 遐鄉之俗 一變 詎無鼎新之功 聖世之治 方隆咸有革舊之念 松桶之風 猶在彷彿乎 魯閔周寢 絲竹之音 長懸依然 若夏序殷庠浩浩乎不可尙 江漢<sup>4)</sup> 之思難忘 倜儻然若親觀羹墻<sup>5)</sup> 之慕 惟永兒郎偉拋樑<sup>6)</sup> 東 古壇春意杏初紅 吾鄉自比成鄒魯 達境絃歌禮樂中 兒郎偉拋樑西 太極巍巍不可梯 金石長鳴絲竹奏 牛山嘉木夕陽低 兒郎偉拋樑南 簷頭賀燕語喃喃 棟樑燦燦鳥斯革 始覺神功造化參 兒郎偉拋樑北 瑞日蒼蒼耀化域 衛道像賢千萬年 吾皇聖德



사진3-14 : 대성전

1) 舍菜(사채) : 옛날 스승에게 처음으로 배울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 采는 채와 같은 자니 卽釋菜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음. [周札 春官 大胥] 古者士見.  
2) 采莪(채야) :泮水の 미나리를 채취하는 것.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入泮이라 하였는데 후에 采莪라고도 하였다. [詩 魯頌 泮水] 思樂泮水 籩其莪.

- 3) 四科(사과) : 孔子가 門人에게 가르킨 4종류의 학과, 德行 · 言語 · 政事 · 文學.
- 4) 江漢(강한) : 시경(詩經) 대아(大雅) 당지십(蕩之什)의 편명(篇名)인데 주선왕(周宣王)의 홍업(鴻業)을 칭찬한 시(詩)를 지었다.
- 5) 羹牆(갱장) : 사람을 우러러 사모하는 것.
- 6) 兒郎(아랑) : 들보(梁)를 올릴 때 떡 같은 것을 던지며 축하하는 병문(餅文).

蕎南國 兒郎偉拋樑上 襟紳濟濟識芯向 登登鼓築重門深 藻耶畫欄仰彌壯 兒郎偉拋樑下 吾東儀則傲中夏 從茲來學得依歸 宴落相歡春酒呵 伏願上樑之後 網維義仁 撐柱宇宙 滄桑雖變 輪奐維新 奏金聲振玉聲流 萬古化神之妙 入小學 成大學 造一代當俊之人 道所存 師所尊 入則孝 出則悌 環八域 孰不仰 窮萬紀 完如斯 純廟十七年丁丑 金海 金永翰撰

훌륭하도다. 깨끗이 단청되니 새롭기도 하구나, 모두 공자님의 거룩함을 우러러 보도다. 높고 나르는 듯한 묘(廟)는 옛 모습 되찾아 빠른 시일 내에 중건되었구나, 영원히 변치 않을 터에 자리 잡았으며 몇 길의 담으로 둘러 싸였네. 대성전 향교창건은 병(丙; 1396년) 일에 시작하여 정(丁; 1397년) 일에 마쳤도다. 인(仁)으로 문을 삼고 의(義)로 길을 열었도다. 일향(一鄉)의 선비들이 이곳에 올라 오도다. 이제부터 대학이 있고 향당에는 글방이 있어 삼대(夏殷周)의 학제(學制)를 여기에서 보겠네. 지난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렸으니 유교의 불행함이었는데 그 뒤 계축년(1613년)에 비로소 경영하여 완성되었으니 성인의 교화는 끝이 없도다. 그 뒤 세월이 여러번 바뀌어 점차로 동우(棟宇)가 퇴락해져서 비바람이 스며들어 때로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여 성의가 없게 되었더니 마침 국가의 운이 형통함을 만나 다 행하게도 우리 태수가 이곳에 부임하자 곧 몇 사람의 동지와 모의하여 수백년 엄두도 못낸 것을 경영하여 좋은 목수와 기술자를 불러 먹줄을 놓아 자르고 다듬어서 좋은 재목을 운반하여 집을 지으니 큰 것은 서까래로 하고 작은 것은 짧은 기둥과 공금대(들보위의 짧은 기둥)를 하였다. 마루에 올라가서 스승에게 폐백을 올리니 남쪽 고을이 크게 교화되었도다. 반수(泮水)에 임하여 미나리를 뜬으니 북녘 땅 선비들도 모두 모였네. 공자께서 계시지 아니 하였다면 누가 후학을 가르치어 나아가게 하였으랴. 붉게 단청한 기둥은 아득하게 하늘 높이 솟았네. 차례로 동재와 서재를 열어서 공부하게 하였도다. 푸른 기와로 엇갈리게 집을 지어 비가 새는 것을 막았고, 윤당(倫堂)과 화루(華樓)는 서로 마주보고 솟았으니 안자(顔子) · 증자(曾子) · 맹자(孟子)와 못 성인을 배향 하였네. 크게 일관(一貫)의 현묘한 도를 밝혔으니, 정자(程子) · 주자(朱子) · 장자(張子)의 모든 어진 분을 향사 지냈네. 모두 사과(四科) 중의 사람이니 공자의 도가 여기에 있도다. 도가 장차 행하려 하면 산골의 풍속까지 일변하였으니 어찌 혁신의 공이 없으랴! 훌륭한 임금님의 다스림은 높아서 옛날의 생각은 말끔히 씻었도다. 송

백의 바람소리는 노나라 비궁(敝宮 : 淸淨之宮 姜原之廟)과 주(周)나라 사당을 방불케 하며 현악과 관악의 소리는 끊이지 아니하니 하(夏)나라의 서(序 : 학교)와 은(殷)나라의 상(庠 : 학교)이 의연하도다. 희고 희어서 더 깨끗할 수 없으며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니 잊기 어렵고 너그럽고 은화하여 친히 우러러보는 것 같아 사모함이 영원 하도다.

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고단(古壇)에 봄이 오고 살구꽃이 붉었구나! 우리 고을 지금부터 추노(鄒魯 : 孔子와 孟子가 나신 곳) 향이 되었으니 거문고 소리가 온 고들에 퍼져 예약에 잠겼도다.

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니 하늘은 높고 높아 올라갈 수 없구나. 종과 석경소리 울리며 현악과 관악을 들으니 우산(于山)의 아름다운 나무에 저녁 해는 비치네.

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니 처마 끝에 앉은 제비는 축하하듯 지저귀고 기둥과 들보는 찬란하여 새가 날아 펼치듯 비로소 신기로운 공(功)이 조화에 참여한 듯하네.

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니 상서로운 햇빛은 밝게 이곳을 비치며 유학하는 현인의 상은 영원히 남으며 우리의 어진 임금님의 은덕은 남국에 미치네.

영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신사(紳士)들이 씩씩하게 주장해 오네.

담장을 높이 쌓고 문도 이중으로 하고 마름을 새긴 동자기둥과 채색된 난간은 볼수록 웅장하네.

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니 우리나라의 의식은 중국과 흡사하네.

이제부터 와서 배우는 사람들 배울 것을 알게되니 낙성식 잔치의 주고받는 옥잔엔 봄빛이 가득 찼네.

원하옵건데 이 집을 상량한 뒤에는 인의로 강유(綱維)를 삼고 우주를 지탱할 기둥을 삼아 창해(滄海)가 상전(桑田)이 되고 상전이 창해가 되어도 웅장한 모습은 언제나 새로우리.

종소리와 경쇠소리 흘러 퍼지며 교화는 만고토록 신묘하도다. 소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배워 일대의 준수한 선비가 되니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은 높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경하니 온 세상의 그 누가 우러러보지 않으랴! 만세가 다하도록 지금과 같으소서.

순조 17년(1817) 정축 김해 김영한 지음.

風化樓 重建 上樑文 (풍화루 중건 상량문)



사진3-15 : 풍화루

宇宙百千萬代 夫子之道獨高 全羅五十三州  
 曦陽之地最僻 苟不尊崇則 何矜式廟貌庸侈 觀  
 瞻之方 儒林丕闡 文明之化 是以創始初載 厥有  
 風化 故樓華構 聳浮 不但關異端而衛吾道 大額  
 高揭于以 正民俗而肅鄉綱 簇<sup>7)</sup> 禮縉紳於舍菜之時  
 入此而處 捷影響於偃草之效<sup>7)</sup> 顧名以思邇來 星  
 霜之屢遷 居然棟宇之不古 風雨磨洗 古壁落丹

青之容 章甫咨嗟 何處講俎豆之禮 賴有一二人同志 爰舉數十載未遑 飛 八  
 雲 視前制而稍變 良工奏技 拓舊址而重新 大海橫前 潮聲聽草浦之雨 正殿在  
 北 風光助杏壇之春<sup>8)</sup> 文不在茲乎 道其將行也 眼前瞻突兀之制 不啻廣厦萬  
 千間 樓上行揖讓之制 嗟哉 吾黨二三子 築以萬世之土 大闢義路仁門 周以數  
 仞之墻 如聞回琴點瑟庭前老檜 長帶絃歌之聲 階下鳴泉 遠溯洙泗之脉<sup>9)</sup> 鄉  
 風自此丕振 儒化庶幾蔚興 俯臨曾子浦明堂田 地名不偶 傍<sup>10)</sup> 白雲山龍門瀑  
 物色增奇 聊撤短辭 助學脩棟 兒郎偉拋樑東 萬象森羅在朗眼中 春服冠童齊  
 六七 雍容氣象舞雩風<sup>10)</sup> 兒郎偉拋樑南 嘉木牛山灑氣含 仁德前村遙指點 里  
 名樓號兩相參 兒郎偉拋樑西 喃<sup>11)</sup> 賀語燕飛低 青襟曉罷焚香禮 簷外春風講  
 席齊 兒郎偉拋樑北 新構翼然雲外直 二字華扁題上頭 一方文物渾生色 兒郎  
 偉拋樑上 蒼翠依微繞壘<sup>12)</sup> 百尺樓高揮勿旗 士林從此識趨向 兒郎偉拋樑下  
 下學工夫自灑掃 咫尺倫堂登挾齊 此身<sup>13)</sup> 悅若廁游夏 伏願上樑之後 江山不改  
 輪奐維新 道所存 師所尊 人服忠信 篤敬之行 入則孝 出則悌 家誦詩書 禮樂  
 之文 風乃鼓萬物之威 孰無興起之志 化是陶一世之柄 咸<sup>14)</sup> 圃中正之方 純廟二  
 十五年 乙酉 知縣 尹謐 稿

- 7) 偃草(언초): 풀이 바람부는 데로 쓰러진다는 뜻으로 백성이 교화에 복종하는 일
- 8) 杏壇(행단): 단(壇)의 이름인데 공자가 교수(教授)하던 유지(遺址),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공자의 집에 행차하였는데 후세에 이로 인하여 전각(殿閣)을 지었다. 송(宋)나라 건흥(乾興)때에 대전(大殿)을 뒤로 옮기고 옛터에 기와를 쌓아 단(壇)을 하여 주위에 은행나무를 심었다. 그후 금(金)나라 학사(學士) 장희영(掌懷英)이 행단(杏壇)이라는 두 글자를 쓴 비석(碑石)을 정내(亭內)에 세운 까닭에 후세에 강학(講學)의 곳을 행단(杏壇)이라 한다.
- 9) 洙泗(수사):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두 강(江)인데 공자가 그 곳에서 설교(說教)하였다.
- 10) 舞雩(무우): 무우(舞雩)에 가서 시를 읊고 돌아오는 것.

우주가 끝날 때까지 부자(夫子=孔子)의 도는 홀로 높았도다. 전라도 53주 중 희양땅이 가장 벽지인데도 부자를 높이 믿고 추앙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향교를 세웠겠는가?

묘우(廟宇)가 깨끗이 단청되어 우러러 바라보며 본받고 법하며 유림이 크게 나타났으니 이는 문명의 교화이다. 이러하므로 시작한 첫해부터 저러한 풍화(風化)를 볼 수 있네. 옛 누각이 화려하게 지어져 하늘높이 솟았으니 이는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교를 호위하

는 데에도 있다. “풍화루”라는 큰 액자가 높이 걸려 있으니 백성의 풍속을 올바르게 하고 고향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다. 신사들이 모여들어 예물을 올리고 또한 이곳에 와서 산다면 빨리 교화되는 것이 언초(偃草)의 효과가 있으리라. 지나온 일을 생각하니 세월이 여러번 바뀌어 어느새 동우(棟宇)가 옛과 같지 않아 비바람 몰아쳐서 단청의 모습은 퇴락하였다.

유림들은 예절을 익힐 곳이 없는 것을 슬퍼하였더니 한두 동지의 힘을 입어 수십 년 엄두도 못낸 일을 하였도다.

지붕의 대마루가 하늘 높이 솟은 것은 과거 건물에 비한다면 약간의 변형이 된 것이다. 훌륭한 목수가 솜씨를 다하여 옛터를 다듬고 새로 지었도다. 넓은 바다가 앞을 가로질렀으니 항상 파도 소리와 겹하여 초남포의 빗소리도 들을 수 있다. 정전(正殿)이 북쪽에 있으니 경물은 행단(杏壇)의 봄빛을 도왔도다. 공자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으니 도가 장차 행할 것이다. 눈앞에 높이 솟은 누각은 천만 칸도 넓은 집인 듯 누상에는 예절에 맞도록 행하고 있네. 아!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곳에 지었구나. 의(義)의 길과 인(仁)의 문을 크게 열었으며 사방으로 높은 담장 쌓았으니 안자(顔子)의 거문고와 증점(曾點=공자의 제자며 曾子の父)의 비파를 듣는 것 같구나. 뜰앞의 늙은 회나무는 영원히 거문고 소리를 띄고 섬돌 밑에 흐르는 샘물은 아득히 수사(洙泗)의 맥을 이었도다. 향중의 풍속이 이로부터 크게 떨치니 유교의 교화가 크게 흥하도다. 밑으로는 증자포(曾子浦)의 명당터를 임하였으니 이름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옆으로는 백운산과 용문폭포를 겸하였으니 경치가 더욱 기이 하도다.

또한 짧은 것은 바꾸어 긴 기둥으로 고쳤네.

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삼라만상이 눈앞에 보이도다. 봄옷을 갈아입은 관동(冠童) 육칠인(혹은 42명으로도 풀이함)과 응용한 기상으로 무우(舞雩)에서 목욕하고 읊으며 돌아오는 기상일세

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니 우산(牛山)의 아름다운 나무는 아득한 기운을 머금고 인덕(仁德) 앞마을은 멀리 자리 잡았도다. 인덕이란 마을 이름과 풍화라는 누각의 호는 뜻이 서로 조화가 되어 마주보고 있도다.

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니 제비는 상하로 날면서 축하하는 듯 지저귀고 조복 입고 예복 입어 새벽에 분향(焚香)을 마치니 강석재(講席齋) 처마 밖에는 봄바람이 가득 찼네.

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니 새로 지은 집은 날개를 편 듯 곧바로 하늘

에 치솟았도다. 풍화(風化)라고 쓴 두 글자의 편액(扁額)은 누각의 머리를 빛냈으니 이 지방의 문물에 더욱 생색이 나도다.

영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푸른빛을 은은하게 높고 낮은 산을 둘러 쌓도다. 백척이나 되는 누각은 깃발을 흔드는 듯 하구나. 사람이 이로부터 추향(趨向) 할 것을 알게 됐네.

영차!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니 쇄소응대(灑掃應對)하는 실천적인 공부부터 밝아 나가세 앞에 있는 명륜당은 협재(挾齋)로부터 올라가니 이 몸이 자유(子遊=공자의 제자)와 자하(子夏)의 옆에 있는 듯 기쁘도다. 었드려 비읍건데 상량한 뒤의 강산은 옛 모습이지만 높이 솟은 집은 단청도 새롭도다. 도가 있는 곳에는 스승이 높은 바라. 사람이 충신(忠信)에 복종하면 행실은 두텁고 공경하노니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경하여 집집마다 시서(詩書)와 예악의 글을 외우면 풍화는 곧 만물의 위엄이 되나니 누가 교화에 뜻을 일으키지 아니하리오.

교화는 일세를 도야(陶冶)하는 주축이 되니 모두 중정(中正)의 법을 따르리라. 순조 25년 을유(1822) 현감 윤밀

\* 순조 25년 을유년(1822)에 光陽의 縣監은 金復昇이었으며 尹鑑은 英祖 40(1764)년부터 同42년(1776)까지의 縣監이었다. 따라서 구지(舊誌)인 光陽郡誌(1925년 刊行)에 기록된 위 사실은 年代와 필자 중 어느 하나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 생각된다.)

### 聽潮樓 重建 上樑文<sup>11)</sup> (청조루 중건 상량문)

述 夫鎮邊陲而益固 閭闔須從方便 因舊制而復興 扁額已備前述 奚止遊燕之所 蓋出捍衛之謨 顧茲馬老蟾津之要衝 實爲鳳鳴龍盤之勝地 夢前塵於草浦 李忠武之神籌難規 仰高風於雲山 崔舍人之流芳可挹 登前楹於橘柚 今古物豐人繁 稱淵藪於漁鹽 遐邇商旅都會 不可無者 關防萊釜之舟楫相通 區以別其職方 湖嶺之疆域是限 戒南夷之曾警鎖鑰 不可非其人 望北斗而每依登樓 亦切憂於國 奈東匪之猖獗 致南門之鬱 攸堆礫殘礎 父老咨嗟 燹址廢原 行人指點 興胡床<sup>12)</sup> 而不住庾亮<sup>13)</sup> 明月閒多年 法函關而弛禁 孟嘗當時無此夜<sup>14)</sup> 迺自赴任之後 念茲興廢之宜 已修葺於衙舍 盡間架存革之規 又請撤於鎮軒 實風雨備豫之策 深憂防守之疎越 畫圖開閉之備 虞量材度力謀 及乃心簡吉選良 詢于諸吏 奮話趨令郎 遺址而經營 斤斧效能 因舊貫而制度 求財力於例下 斂不加而徵前 用材瓦於取中 功必倍而事半 北望山勢 累雲 繞生畫

11) 聽潮樓(청조루): 현재 광양읍내리 옛국제약국의 앞 근처에 서 있던 광양성 남문의 2층 누각이다. 동학난 때 소실되었는데 1901년 중건(重建)되었다가 1923년에 민가의 실화로 불타버렸다. 이 글은 1901년의 중건기(重建記)이다.

12) 胡床(호상): 결상보다 길며 뒤에 기대는 것이 있고 필요치 않을 때는 접을 수 있는 것.

13) 진(晉)나라 사람으로 예(袁)의 아우이며 명목황후(明穆皇后)의 형(兄)이다. 자(字)는 원규(元規).

欄南指海門 往往潮聲落層榭 凡厥首尾三朔 宛然喉項一城 九百步探窾 庶可得彌堅之賴 十二面民物亦將有依歸之方 不罷力而完之 他日見晉陽守<sup>15)</sup> 是老計而隱者 何代無夷門監<sup>16)</sup> 或與客而臨高 何妨寓山水之樂 非爲人而觀美 實維備陰雨之憂 瞻一鄉之擅勝 頌六偉之歌 兒郎偉拋樑東 花岳氤氳瑞氣通 魚度鱗<sup>17)</sup> 重開灰劫後<sup>18)</sup> 層欄縹緲出雲中 兒郎偉拋樑西 岡鳳高飛訪舊樓 覽德來儀君子國 碧梧東畔竹陰低<sup>19)</sup> 兒郎偉拋樑南 颿帶斜陽八草藍 極望春潮天共接 海量曾是慣包涵 兒郎偉拋樑北 望裏雲山延紫極 請祝吾皇千萬年 映樽柏葉長春色<sup>20)</sup> 兒郎偉拋樑上 簾外春濃祥日朗 圍彼群生化城中 煙花畫出昇平像 兒郎偉拋樑下 睇陽明月多今夜 柝烏不禁來遊人<sup>21)</sup> 望海城南依舊榭 伏願上樑之後 綴旣堅不磨不泐 高宗辛丑知縣 李重翼 撰

말하노니 대저 변방을 진압하는 것은 더욱 굳게 하여야 되며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구제(舊制)에 인하여 다시 세우고 편액에 이미 옛 사람이 말한 것이 갖추어 졌으니 어찌 유연(遊燕)의 곳에 그치리요. 대개 적을 막고 국민을 호위하는 규모에서 생긴 것이다. 돌아보건데 이 마로(馬老)는 섬진강(蟾津江)의 요충지이니 실로 봉이 울고 용이 서리는 경치 좋은 곳이다. 초남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생각을 하니 이 충무공의 신기로운 계책은 배우기 어려우며 백운산의 높은 덕을 우러러 보니 최사인이 남긴 아름다운 행적은 가히 잡을 듯 하구나. 글과 유자를 광주리로 담았으니 나 이제 물건이 풍성하고 사람이 많으며 못과 늪에 고기와 소금이 있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장사꾼이 모여든다. 동래와 부산에서 배가 오고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구역에 따라 직분이 구별되므로 호남과 영남의 지역을 경계지은 것이다. 남쪽 오랑캐를 일찍부터 경계하였으니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적격자가 아니면 맡길 수 없다. 북두성 바라보며 매양 누대에 의거할 때 마다 우국의 마음 간절하고 동비(東匪)가 걸잡을 수 없이 일어나니 남문을 꼭 닫아 놓았도다. 쇠잔한 초석이 무너졌으니 부로(父老)가 슬퍼하였도다. 옛터는 불타고 풀은 무성하니 길가는 사람들이 옛 청조루라고 손가락질 하도다. 호상(胡床)은 있지마는 유량(庾亮)이 없으니 명월만 비치어 세월은 덧없고 함곡관(函谷關)의 금법(禁法)이 해이하여졌으니 맹상군(孟嘗君) 당시에는 이런 밤이 있을소냐. 이미 부임한 후로 흥폐(興廢)의 알맞음을 생각하여 이미 아사(衛舍=官廳)를 보수하여 칸수(間數)를 사용하기에 알맞도록 뜬어 고쳤다. 또 진헌(鎭軒=藩鎭)을 철거

- 14) 맹상군(맹상군) : 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 사람으로 제(齊)나라 전영(田嬰)의 아들이었는데 식객(食客) 3,000명을 두어 선비를 우대하였다.
- 15) 晉陽守(진양수) :尹鐸을 가리킴. 그가 晉陽郡守가 되어 국면을 사랑하였으므로 풀나라에 亂이 있자 백성들이 진양으로 피난하였음.
- 16) 夷門監(이문감) : 후영(侯瀾)을 가리킴. 戰國때 魏의 隱士였는데 70세까지 夷門監이라는 낮은 벼슬을 지내다. 信陵君의 客이 됨으로써 將軍 晉鄙를 죽이게 하여 邯鄲(趙나라 서울)을 위기에서 구하도록 하였다.
- 17) 魚鱗(어각) : 고기 모양의 자물쇠. 고기는 밤에도 눈을 감지 않으므로 밤을 지킨다는 뜻으로 고기모양을 하였음.
- 18) 灰劫(회겁) : 人間世上의 業火가 타는 것.
- 19) 碧梧(벽오) :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을 틀지 아니하므로 碧梧所陰을 말한 것이다.
- 20) 柏葉(백엽) : 백엽사(柏葉酒)라고 하며 잣나무 잎으로 술을 담아 정월달에 마시며 장수를 빈다.
- 21) 柝(탁) : 이항중문(易向重門)이란 뜻으로 탁(柝)은 탁(柝)자와 같다. 문을 지키고 목탁을 친다는 뜻이다.

하였으니 실로 풍우의 침범을 예측하여 취한 것이다. 굳게 방비하고 수호함이 소홀할 것을 근심하니 어느 때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지 않겠는가? 재목과 인력을 헤아리어 청조루 중건을 마음먹고 좋은 날을 받아 대목을 구하는 것은 모든 아전에게 물어서 하였으며 삼태 잡고 가래들어 명령에 추창하여 곧 바로 유지(遺址)에 가서 경영하여 대목들의 익힌 숨씨 옛 모습을 본뵈었다.

제물과 인력을 예하(例下=정례에 따라서 내려줌)대로 구하여 독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에다가 바쳤도다. 재료는 그 가운데서 취하였지만 배(倍) 붙이며 일은 절반일세! 북쪽으로 산세를 바라보니 구름은 첩첩하여 단청한 난간을 돌았고 남쪽으로 해문(海門)을 바라보니 조수 소리가 왕왕 높은 대사(臺榭)에 들어오도다. 무릇 중수한지 삼개월만에 완연히 후항(喉項=요충지)의 한 성이로다. 900보나 되는 성은 험한 산골 따라 쌓고 12면 민들은 장차 유사시에 돌아갈 곳이 생겼도다. 힘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완성되었으니 다른 날에 진양군수의 효과를 보리라.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도 이문감(夷門監)처럼 언급한 사람이 어느 시대는 없으리요. 혹 객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기도 하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음우(陰雨=국가에 유사한 일)를 대비한 것이다. 일향의 좋은 경치 마음껏 바라보며 동서남북상하에 영차 들보에 떡을 던지니라는 노래를 불러서 칭송하리라.

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화악산(花岳山)에 어린 정기 서기(瑞氣) 토하도다. 어약(魚鱗)으로 거둬 빗장 하였으니 인간 세상에 업화(業火)가 지나간 뒤며 층대의 난간은 아득히 하늘 높이 솟았네.

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니 산에 있던 봉(鳳)은 높이 날아 옛 집을 찾으며 덕을 살피 옛 군자국에 와서 거둥하니 벽 오동 언덕에는 대나무 그림자가 낮도다.

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니 돛단배는 석양을 띄고 푸른들 끝에서 사라지고 아득히 봄 조수는 하늘과 같이 맞붙어서 넓은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구나.

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니 아득히 북쪽으로 구름과 산은 궁성까지 뻗었구나. 비나이다. 우리 임금님께서 천만년을 사육시고 술단지에 비친 잣나무잎은 길이 봄빛일세 영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주렴밖의 봄빛이 무르익으니 일기는 화창한데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 교화되어 봄 경치는 그



림과 같아서 태평세상 기상일세.

영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희양땅 밝은 달 많은 밤에 문지기는 오는 사람 막지를 얹아 남쪽 바다를 바라보니 옛 대사(臺榭) 그대로 있구나. 었드려 원하옵건데 상량한 뒤에 더욱 견고하여 깎이지도 닳지도 말아주소서.

고종 신축(1901년) 지현(현감) 이종의 지음

### 興學齋 上樑文<sup>22)</sup> (흥학재 상량문)

五百年聖化累洽 七十載院宇重修 己卯尊賢之規知風之自 爰興講業之所不日而成 曩昔新齋先生 卽我光邑夫子 癸酉科榜 己卯賢名 首湖南人傑之三 參海東文獻之一 雖袞貞一網之打 幸安鄭二相之賢 在白玉而無瑕 使青萍<sup>23)</sup>而長價 所以建院於蘿菴之洞 亦惟享祠於桑梓之鄉 棟宇翬飛三百年前 後之申創 衿珮鵠立二八月中末之丁日 下亦有數椽講堂 上可坐一鄉多士 秩秩乎豐約制度 濟濟乎昇降威儀 居然物換而星移 鹿院重建之議 久而風磨而雨洗 袁學再修之工 雖合士林之周咨 實係財力之齊辦 顧我尊師而樂道之人 皆知之況今民和而歲豐時則可矣 豈意金邑有司之責 適歸一介無似之躬 在後生慕先師 固知辭謝而不敢 以少年當大事雖欲黽勉而餘憂 數百株許施之材 實緣我侯之勤請 十二方勸分之財 專由吾黨之相應 余非有錙銖之自勞 事已多繩墨之就效 地爲五十州居甲 院壁重新 日在春三月 建辰堂宇仍舊 簞豆之禮 於斯式陳 學業文章之風 自此可述 庸將短律 助學脩櫟 兒郎偉拋櫟東山城朝日出雲紅 舍人遺跡今何處 望德峰高指點中 兒郎偉拋櫟南 補虛蔽外洗輕嵐 聊知當日吟詩暇 曾浦程坪聽野談 兒郎偉拋櫟西 佳木牛山野氣遙 今人尙說先生宅 南州元脈挾清溪 兒郎偉拋櫟北 白雲一抹翠微色 試問學士埕前溪 嗚咽清波去不息 兒郎偉拋櫟上 金堂玉署氣豪爽 十年若使無南遷 今世唐虞在指掌 兒郎偉拋櫟下 濱海遐方一草野 鍾得那向山水精 淵源道學大儒雅 伏願上樑之後 士氣咸勵 人材賁興 玉色金章 日進於君子之道 蓮榜桂籍雲集於科甲之名

崇禎戊子三月 利川人 徐顯斗 謹識

500년 동안 성인의 교화가 흡족하여 70년만에 원우(院宇)를 다시 보수하였네. 기묘년(己卯年)의 어진 이를 문묘에 배향하였으니 앞으로 덕화가 이루어질 것을 알겠도다. 이에 강업(講業)할 곳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워졌

22) 興學齋(흥학재) : 향교 남쪽 10m 거리에 있던 고을 선비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던 곳. 건립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터만 남았는데 영조(英祖)때의 이교을 현감인 任遠(1741. 12. ~ 1742. 12월 재임)이 선비 서창주(徐昌祐), 정수구(鄭壽龜), 김명갑(金命甲), 강재래(姜載來) 등과 협력하여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현감이 바뀌고 그 후 여러 해가 지나 정조(正祖) 8년(1784년) 겨울에 당시의 현감 우정규(禹禎圭)가 고을의 자제(그들 중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으로는 정수구(鄭壽龜)의 손자인 정영(鄭榮)과 서창우(徐昌祐)의 아들인 서윤화(徐潤和) 그리고 허정(許珩)등이다. 그리고 이들이 우정규(禹禎圭)의 송덕비를 세웠다)와 도모하여 드디어 중건을 보았다.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흥학재가 처음 세워진 때는 1400년대로 추측된다. 이 글을 쓴 서현두(徐顯斗)는 윤화(潤和)의 손자이다.

23) 青萍 : 옛 名劄의 이름.

도다. 옛 신재(新齋) 선생은 우리 광양 고을의 부자(夫子) 이시다.

계묘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기묘사화(己卯士禍)의 명현이도다. 호남 인걸 셋에서 첫째가고 해동문헌에 첫째 참여하셨네. 비록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에 의하여 일망타진 되었으나 안당(安塘)·정광필(鄭光弼) 두 정승은 다행이었네. 흰구슬에 하자가 없으니 청평(靑萍) 칼의 값이 비싸게 되도다. 서원은 나복동(蘿菴洞)에 세우니 고향 사람들이 향사를 지냈도다. 동우(棟宇)가 높이 솟으니 300년 전의 것이 후에 거듭 창건되었고 학사들이 마주서서 2월과 8월 마지막 정(丁) 일에 제사 지냈네. 밑으로는 몇 아름되는 서까래에 강당이 있고 위에는 한 고을의 많은 선비가 앉을 수 있네. 질서가 정연하여 제도가 풍부하고 단정하도다. 위엄있는 오르내림이여, 그대로 물건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녹원(鹿院)을 증건하는 의론이 생기게 되었다. 오래되어 바람에 갈라지고 비로 씻겨 원학(院學)을 다시 보수하게 되었네. 비록 사람들이 모두 찬성을 하였으나 이 일이된 실상은 재력이 염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존사(尊師)께서 도를 즐긴 것을 사람마다 알게 되었으니 하물며 백성이 화하고 풍년이라 때도 알맞았도다 하여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있으랴. 후생이 선사(先師)를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사양하지 못함을 알겠으며 젊은 나이로 큰일을 맡았으니 아무리 노력하여도 근심이 따르는 법. 수백주(株)가 넘는 재목을 준 것은 실제로 우리 군수님의 부지런한 청에 인연했고 사방 팔방으로 재물을 나누어 받은 것은 온전히 오당(吾黨)이 서로 응함이도다. 나는 조금도 수고롭지 아니 하였는데 일은 이미 착수 진행되기도다. 땅은 50주(州) 갑지에 존재하여 원벽(院壁)을 새로 하였고 날은 춘삼월이라. 월건(月建)이 진(辰)월인 달에 당우(堂宇)가 옛 모습 찾았네. 보례(篋簋=제기)와 변두(筵豆) 등의 예물을 준비하였으니 공경히 진설하였고 학업과 문장의 풍은 여기로부터 말할 수 있게 되리라. 짧은 것으로 지렛대를 하고 긴 들보를 올리며

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산성의 아침해는 붉게 구름 밖으로 솟아 나오고 사인(舍人) 유적이 지금 어디 있는고, 망덕봉(望德峰) 높이 솟아 손가락질 하는 곳일세.

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오니 보허수(補虛藪) 밖은 가벼운 아지랑이 깨끗이 씻기었네. 그 당시 시 읊는 여가가 있으면 증포(曾浦)와 정평(程坪) 들에서 야담(野談)을 들었음을 알겠도다.

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오니 우산(牛山)의 아름다운 나무는 야기

(野氣)에 아득하고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선생집을 말하는데 남주(南州)의 근본 맥은 본건원이 맑은 시내를 끼고 있지요.

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오니 백운의 한 줄기는 은은한 빛을 띄웠도다. 문노라 학사대 앞 시냇물아 오염(鳴咽)하듯 흐르는 맑은 물결 쉬고 싶지 않겠지!

영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금당(金堂)과 옥서(玉署)는 기운이 호협하고 상쾌하도다. 만약 10년간 남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금세에 요순 정치 문제없으리.

영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바닷가 먼 곳의 한 별관에 어느 곳을 향하여 산수의 정기가 모이었는데. 도학연원을 얻은 대유(大儒)가 있지. 비읍건대 상량한 뒤에 사기(士氣)가 다듬어져 인재는 크게 일어나서 옥색과 금장을 한 벼슬한 분은 날로 군자의 길에 나오며 연방(蓮榜)과 계적(桂籍)에 과거 합격자는 구름처럼 모이며 과거장에 이름이 오르기를!

송정무자(1828) 3월 이천인 서현두 삼가 씀.

### 鳳陽祠重建上樑文<sup>24)</sup> (봉양사 중건 상량문)

滄桑幾翻於故邦 久闕牲幣之儀節 天實爲之棟宇更起於今日 聿睹鳳鳴于朝岡<sup>25)</sup> 道所存者 恭惟我崔新齋先生氣鍾河岳 道炳日星 身作己卯諸賢 名登甲乙高榜 世稱湖南省之三傑 從遊老師醇儒 有若魁傑之位 躋皆 品之九遷 歷歆清班顯秩 無非道義之士 日月光華兮 期圖軒義時代 豈料北門之交 風雲際會也 庶幾堯舜君臣 遽屆東運之夜開 鴻罹一網之禍 無處可伸 竊念並鄉生長之桑梓 始創于穆陵戊寅之年 悽愴英參降之芬苾<sup>26)</sup> 被撤于高廟青龍之<sup>27)</sup> 示異荒涼草靈之靡 托何處奠爵奉香 自是厥後運之循樹之遺墟 滿地破瓦殘礎 以迄于今道之興環 或有剝往復來之境<sup>28)</sup> 於是載謀載猷 遠近并廢 豈無先<sup>29)</sup> 後笑之期 不日相求相勸 公私協力 鳩聚良材 方者方 直者規矩 準繩隨左右 心龜從吉址



사진3-16 : 봉양사 중건 사적비

24) 鳳陽祠(봉양사) : 광양 향교 앞 조산(朝山=造山)에 있던 사당으로 조선 선조 11년(1578)에 현감 정숙남(鄭淑男)이 세워 최산두(崔山斗)와 전 현감 박세후(朴世熙)를 모셨다. 정유왜란(1597년)때 불에 타버려 이듬해에 다시 세웠는데 고종 5년(1868)에 헐리고 그 터에 사적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1970년에 중건되었는데 이 상량문은 그때의 것이다.

25) 鳳鳴于朝岡(봉명우조강) : 봉이 아침 언덕에서 운다. 「詩大雄」鳳鳴矣下 商岡 梧桐 生矣于朝岡

26) 芬苾(분필) : 향기로운 것. 다시 말하자면 제사에 향기로운 음식을 장만하는 것. 「詩小雅」苾芬老祀 祀日耇 飲食

27) 靑龍(청룡) : 대갑(大甲)으로 말하면 갑진년(甲辰年)에 해당되나 십이신장(十二神將)으로 보면 인년(寅年)이 청룡(靑龍)에 해당되므로 고종(高宗)3년(1866) 병인(丙寅)이됨.

28) 剝往復來(박왕복래) : 쇠하면 다시 흥한다는 뜻.

高則高 低則低 美麗堅緻 從外內而相構 是所謂有志者事竟成 既而斤斧告而呈奇 孰不曰其舊柯新孔 可遽爾輪負俱訖 日吉辰良 魚躍曾子之浦 斯革斯飛 山增完 旺風 至 花滿馬老之峯 吾愛吾道 夏宜靑而水增綠 今而後 庶見神明之如在 庸助誦而春宜絃 必也使更得吾儕之攸歸 載陳呼耶之聲 兒郎偉拋樑東 吾鄉從此成鄒魯 郎偉之曲 扶桑曙色一輪紅 禮樂絃歌達魯境 拋樑西 牛山嘉木夕陽低 斤斧剪伐君休怪 通化<sub>國</sub>官民一切齊 拋樑南 滄濱萬里碧如藍 賢人所遇增精彩 沿海家家遺澤涵(※ 以上數句文脉不通 更考後日)

庚戌春 二月 凝川 朴鍾凡 撰

창해와 상전이 몇 번이나 반복된 옛 나라에 오랫동안 제사의 의절(儀節)이 꺾하였으니 하느님의 뜻인지! 오늘날 동우(棟宇)가 다시 일어나 마침내 봉이 조강(朝岡)에서 우는 것을 보게 되니 도가 행하게 될 것이다. 공손하옵게도 우리 최신재(崔新齋)선생님은 산악의 기운을 모았으며 도는 일성과 같이 빛나도다. 몸은 기묘제현(己卯諸賢)이 되었고 갑을(甲乙)의 높은 방에 합격하여 이름을 올렸도다. 세상이 호남(湖南)의 삼걸(三傑)이라 칭하고 노사순유(老師醇儒)에 쫓아 공부하여 뛰어난 호걸이 되었으며 위는 품계에서 아홉번 오른 것이니 청반(淸班)과 현질(顯秩)을 다 겪었으므로 도의의 선비 아닐 수 없다. 일월의 빛남이여! 현원(軒轅)씨와 복희(伏羲)씨의 시대를 기약하였으나 어찌 소인과 사권을 헤아렸으랴. 어진 임금과 어진 신하가 만났으니 거의 요순(堯舜)의 군신으로 바랬으나 갑자기 풍운의 밤을 만났도다. 기러기가 그물에 걸리어 화를 만났으니 신원(伸冤)할 곳이 없도다. 생각하니 같은 고향에서 자라난 나무로 비로소 선조 戊寅年(1578)에 지었으니 청창하게 영혼이 내려와서 흠향하도다. 고종 3년(丙寅)에 서원의 첩폐를 당하였으니 영혼은 황량하여 어느 곳에 술잔 드러 향불을 피울까! 이 뒤로는 세월을 따라 기와 조각과 쇠잔한 초석(礎石)만 가득하였네. 오늘에 이르러 도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돌고 도는 법 이에 꺾하고 모의하여 원근이 모두 주선하였으니 어찌 앞에 슬픈 것이 뒤에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윽고 서로 구하고 서로 권하여 공사(公私)간에 협력하였도다. 좋은 재목을 모아들이어 모난 것을 모나게 곧은 것은 곧게 자질하고 먹줄 튕겨 이리저리 돌아 다녀서 점쳐서 좋은 땅 가려 높은 데는 높게 하고 낮은 데는 낮게 하여 아름답고 견고하고 치밀하여 안팎을 따라 맞게 지어 나갔네. 이것이 뜻이 있으면 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윽고 목공(木工)이 마침을 고하

니 모두가 훌륭한 데에 놀라며, 장인은 좋은 날 마침을 잘하였네.

고기는 증자포(曾子浦)에서 뛰어 놀아 날개 달고 나는 듯하니 산이 아름답다움 더하였다.

따뜻한 바람이 함께 오니 꽃은 마로봉(馬老峰)에 피었도다. 우리는 유도를 사랑하며 여름에는 푸른빛이 마땅하므로 물은 푸른빛 더 하였네. 이제야 신명이 있는 듯함 볼 수 있구나. 수고로움을 칭송하는 데는 봄에 거문고가 더욱 좋구나. 틀림없이 우리의 동지가 다시 지향할 것을 얻어 야호하고 소리를 치며

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동쪽에 동이 트니 둥근 해는 붉게 빛나고 우리 고을 이로부터 추로향(鄒魯鄉)이 되었으며 예약을 노래하니 동쪽의 새벽해가 붉었네.

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니 우산의 아름다운 나무에 석양은 비치고 도끼로 나무를 벤다고 괴이하게 생각지 마소 관민(官民)이 교화된 곳에는 일체가 동등일세.

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니 바닷가 만리는 진초록색 보다 푸르다. 어진 사람 만난 곳엔 정채(精彩)를 더하였고 바닷가 집집마다 유택(遺澤)에 잠기었네……(이하 수구(數句)는 순서가 불분명하여 번역을 생략함)

경술(1970) 봄 2월 응천(凝川) 박종범 지음

羅將廳 重建 上樑文<sup>29)</sup> (나장청 중간 상량문)

時不可緩兮乃營乃度 廳於是設矣苟美苟完 事若待今 功期不日 顧茲十數輩間 卒 爰有八九椽廳房 密邇鈴軒 發一號而響應 長立衙役 隨百爲而趨承 開 門之趁期無闕守直 大小事 僉議有時會同 葺緣創建之年多 久致傾圮之日甚 椽臺折落 難禁屋漏之床床 枉樑頽傷 可見其勢之岌岌 雨打風撼 群徒多失所之憂 歲 儉廳殘財力有難辨之歎 茲於積年經紀之際 幸有如干措備之資 長腰孔方力或賴於某某 大 宗細桶 響初動於丁丁 築土惟堅 因舊址而 立礎 治木尚朴擇吉辰而上樑 斯足以居息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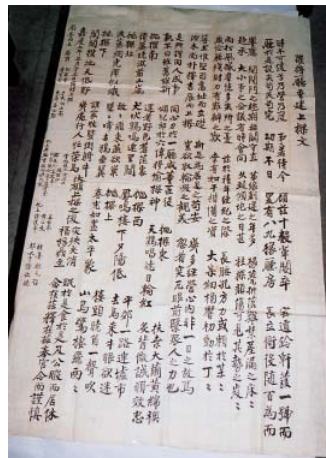


사진3-17 : 나장청 중간 상량문

29) 羅將廳(나장청) : 고을의 병방(兵房)에 소속 병사(兵士)들이 일하며 쉬는 곳 현재 사장관사터.

苟安 豈欲取輪輿之觀美 幾多經營 心內非一日之故焉 忽看突兀眼前繫衆人之力也 是所謂因人成事 孰不曰雖舊維新 同心力於一廳咸董匠役 頌兒郎於六偉穆愉樑神 拋樑東 天鷄唱曉日輪紅 扶桑大繭黃綿襖 炙背微誠願効忠 拋樑南 捲簾曉濕前山嵐 遙看野色蒼茫裏 犬吠鷄鳴連里閭 拋樑西 鳳鳴樓下夕陽低 平郊一路連墟市 去馬來牛眼欲迷 拋樑北 拋樑北 淡蕩煙光渾似織 故故飛來燕欲巢 雙雙啼去雅垂翼 拋樑上 春光如盡太平象 樓頭曉角一聲吹 山鳥驚棲飛兩兩 拋樑下 閭閻撲地天低野 誰家牧豎倒騎牛 幾處行人忙策馬 伏願上樑之後 灾殃夫消 福祿鼎至 眠於是 食於是 及公暇而居休 念在茲釋在茲奉官令而謹慎

嘉慶 五年 三月 二十三日 寅時上樑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음이어! 이에 성조(成造)를 하게 되었구나! 공사가 만약 오늘을 기다렸다면 오래되지 않을 것이로다. 이에 10여 수비 군졸들을 돌아보니 겨우 8~9개 서까래의 청방(廳房)만 있었으니 가까운 방울을 난간에서 한번 소리나면 응해오고 오래 서 있는 수비들 모든 일 잘 받들었다. 닫힌 문 열면 수직(守直)을 비울 수 없고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회합이 있었다. 새로 세우려고 했던 세월이 오래된 것은 집이 황폐하게 된 것이 심했기 때문이라. 서까래와 지붕대마루가 부러져 바닥에 물이 새어 들고 기동과 들보가 손상되었으나 그 모양만은 높아서 있음을 볼뿐이다. 비가 치고 바람이 흔들여 많은 무리들이 있을 곳이 없는 근심이 많았고 흉년과 청(廳)에 힘이 쇠잔(衰殘)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다. 이에 여러 해에 걸쳐 계획을 했을 때 다행히 자금준비가 되었으니 그 중 자금을 모 모씨에게 의뢰하게 되어 큰 대들보와 적은 씨끌 다듬는 소리가 정정하게 울렸다. 땅이 견고하기 때문에 옛터에 정초(定礎)하였고 목재는 질박(質朴)한 것으로 하고 길일을 선택하여 상량하게 되었다. 이에 편안하게 휴식하게 되었으니 어찌 화려하고 장대(壯大)한 것만을 바라리오. 성조할려고 하는 많은 생각들은 하루의 연고(緣故) 때문 만은 아니며 문득 눈앞에 우뚝 솟은 것은 여러 사람의 힘이 모였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이른바 사람으로 인하여 일을 이룩함이니 누가 비록 옛 것이나 유신(維新)된 것이라 아니하리오. 한 청(廳)에서 마음과 힘을 합쳐 목수들 일을 감독하여 상하와 동서남북에 어영차! 하면서 양신(樑神)을 즐겁게 할 것이니라.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던지려하여 떡을 던지니 하늘 닭이 새벽에 울어

해가 붉어지는구나. 동국(東國)의 누에고치로 명주배와 누렁솜 도포 들보에 감고 등 따뜻한 백성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하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려하여 떡을 던지니 발(簾)걸은 새벽에 앞산의 아지랑이 축축하고 멀리 보이는 들 아득한데 개짓고 닭 우는 마을이 연(連)해 있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려하여 떡을 던지니 봉이 다락 밑에서 울고, 곧 석양이 되었네. 평평한 들 깊은 저자로 이어지고 가는 말(馬) 오는 소에 눈이 희미하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려하여 떡을 던지니 맑은 연기빛 모두 깃발 같네. 까닭 있어 날아오는 제비는 집을 지으려하고 짝지어 울고 가는 까마귀는 날개를 드렸네.

어영차!! 들보를 하늘로 던지려하여 떡을 던지니 봄빛 그림 같아 태평의 기상이네. 다락 위의 새벽 통소 한번 부니 산새들 놀라 짝지어 날아가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려하여 떡을 던지니 마을이 땅에 부딪쳐 하늘이 나직하네. 뉘집 목동(牧童) 소를 타고 몇 군데 가는 사람 말을 채찍질하네.

엎드려 원하옵건대 상량 후에 재앙이 결단코 없어지고 복록이 겹으로와 주소서. 이어서 자고 이어서 먹고 또 공가(公暇)에는 쉬고 또 여기에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두고(用品) 관령(官令)을 받들어 조심조심 할 것이로다.

가경(嘉慶) 5년 정조(正租) 24년(1800) 3월 23일 인시 상량

 집필 :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박태상